



[홍]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경축이동)

2023년 9월 17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미사 시간

-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공소 미사

-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오후 7시)
-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오후 5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30분

◆ 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 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 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 사목회장

박봉철 니콜라스
Bong6570@gmail.com
704.840.4106

◆ 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 주소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 미사 전례

• 성가

입당 287 봉헌 217 성체 498 파견 285

• 제 1독서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 화답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독서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8,31ㄴ-39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
구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교황 프란치스코 : 신앙인의 사도적 열정에 대한 교리 교육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령, 성 후안 디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도적 열정, 곧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이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복음화를 위한 열정에 대한 교리 교육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미로 눈을 돌려봅시다. 남미의 복음화에는 과달루페라는 살아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과달루페는 복음화의 살아 있는 원천입니다. 멕시코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모님 발현 이전에도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토착화의 길을 가는 대신에 이미 확립된 모델(예컨대 유럽식 모델)을 이식하고 강요하는 성급한 길을 너무 자주 취함으로써 토착 원주민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원주민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며, 현지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어머니이시며 모든 자녀들은 그분의 땅토 아래 제자리를 찾습니다.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셨고, 성모님을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강생하십니다. 실로 성모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언어, 곧 사람들의 모국어로 하느님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모국어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각자의 모국어를 통해 전해집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많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삶과 함께 전수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첫 번째 복음 전파자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박수를 친다.] 그리고 복음은 성모님께서 보여주는 것처럼 항상 단순함, 소박함을 통해 전달됩니다. 성모님께서는 루르드와 파티마에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테페약 언덕에서도 항상 소박한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제 후안 디에고 성인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이이자 성모님의 계시를 받은 토착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령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 평범한 원주민이었습니다. 작은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후안 디에고는 늦깎이 신자였으며, 세례를 받았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성모 발현을 목격한 1531년 12월, 그의 나이는 57세였습니다.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테페약 산을 넘고 있던 그는 다정하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내 사랑하는 작은 아들 후안”(발현 이야기를 담은 「니칸 모포우아」(Nican Mopohua), 23쪽)이라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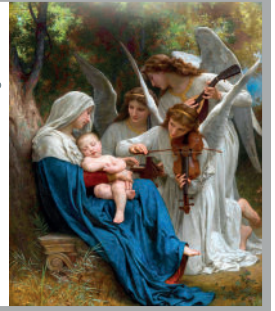
르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이 발현하신 곳에 성당을 세우라는 메시지를 주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순박하고 유순한 후안 디에고는 기꺼이 그러려는 마음으로 주교를 찾아갔으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주교를 만나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주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교님들이 이렇습니다. (...) 집으로 돌아온 후안에게 성모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주교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주교를 찾아가 어렵게 주교를 만났습니다. 주교는 후안의 말을 듣고 그를 돌려보낸 다음, 그의 뒤를 밟으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 선포의 수고와 시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열성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자체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선을 증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도 참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곧,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선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도 참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면서 악도 참아 견뎌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음의 토착화와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항구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떠오릅니다. 후안 디에고는 주교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신을 다시 돌려보내자 낙담하여 성모님께 자신에게서 이 임무를 거둬들이고 자기보다 더 존경받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서는 후안에게 참고 견디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항상 포기하고 싶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러서서 낙담하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나 소그룹 혹은 주관적인 신심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따라 세상의 도전에 내보내는 좋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용기를 얻은 후안 디에고는 주교를 다시 찾아갑니다. 주교는 성모님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후안에게 표징을 약속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 네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같은 책, 118-119쪽)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피폐해지고 슬픔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성모님께서서는 후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후안에게 메마른 테페약 산 정상으로 올라가 장미꽃을 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계속)

2023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전신자 제단체 가입하기
2. 연령별 단체 만들기
3. 코이노니아 소식지 부활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황님께서
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9월1일부터 프란치스
코 축일인 10월4일까지를 '창조 시기 season of creation'
로 정하시면서 모든 신자가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평일미사 안내

신부님의 파견사제, 수도자 연수 참석으로 인하여 9월 20일
(수), 9월 21일(목), 9월 22일(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3. 9월20일(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의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미사를 9월 17일로 이동합니다.

4. 한가위 미사 안내

9월 29일 한가위 미사를 24일(일)로 이동합니다. 조상님들
의 연미사를 바치실 분들은 9월 22일 (금)까지 사무장의 카
톡이나 사무실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야외 미사 안내

- 일시 : 10월 8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Reedy Creek Park
2980 Rocky River Rd, Charlotte, NC 28215

6. 2차 헌금 안내: 은퇴 사제를 위한 2차헌금

- 일시 : 9월 24일(일)
- 은퇴사제를 위한 2차 헌금은 본당의 배당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꾸리아 모임 안내

- 일시 : 9월 17일(일) 미사후 믿음교실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 968.00	DSA	\$ 200.00
교무금	\$ 3,052.80	매일미사	\$ 142.00
건축 헌금	\$ 763.20	감사헌금	\$ 200.00
		총	\$ 5,326.00

- **교무금** : 안병일, 최순길, 임정미, 김대호, 홍무연, 한은경, 우귀숙, 장경선, 손태성, 김창식, 정규승, 김진호, 박동환, 최철희, 서담, 박배호, 황도린, 안정진, 정성기, 오해수, 한철교, 이상수, 김영일
- **DSA** : 차용현
- **감사헌금** : 이덕원

8. 2024년 달력 광고 모집

2024년도 달력에 스폰서 광고를 하실 분을 찾습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선착순 8업체만 가능합니다.

- 광고비 : \$200.00 • 마감: 10월 8일(일)
- 신청 및 문의 : 사무실 (704) 531-8417

9. 과달루페 성지 순례 참가자 예비 모임 안내

- 일시 : 9월 17일(일) 미사후 친교실
- 성지에 대한 교육 및 전반적인 순례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참가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 성 이윤일 요한 성당 추계 골프대회

- 장소 : Charlotte National Golf Club
- 6920 Howey Bottoms Rd, Indian Trail, NC 28079
- 일시 : 9월 24일(일) 오후 1시
- 참가비 : 100불
- 문의 및 신청 : 김광철 안드레아 골프회장,
서담 프란치스코, 최혜경 마티아
- 신청 마감 : 9월 17일(일)

11. 바오로딸 도서선교 안내

- 날짜: 2023년 10월 1일(일) 미사 전후.
- 특강 주제: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현존하는 바오로딸들.
본당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바오로딸 수녀님들이 오서
서 신앙서적을 전시,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바랍니다.

연미사	미사참례자 수 : 130 명	
	생미사	병중에 계신 분
장철호 찰리 지복순 데레사 권옥자 바올라 안광수	Audrey Kim	박은수 라우렌시오 최철희 비오
전례	구역/일시	전례 담당
성 김대건 안드레아사 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 일 경축 이동 미사	6구역 9월 17 일(일) 10:30am	• 해 설: 길세웅 • 독 서: 우귀숙, 오화자 • 봉 헌: 김광철, 김인순
연중 제 25 주일	학생미사 9월 24 일(일) 10:30am	• 해 설: 민지호 • 독 서: 길현서, 박준현 • 기 도: 박준우, 김경순 • 봉 헌: 민수아, 김혜안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후안은 산 정상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장미꽃을 자신의 망토에 담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장미꽃을 주교에게 그 증거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안은 주교를 찾아갑니다. 가서 인내심을 가지고 차를 기다린 후 마침내 주교 앞에서 자신의 티마(Tilma, 원주민들의 겹옷, 망토)를 열어 보입니다. 후안이 자신의 티마를 열어 장미꽃을 주교에게 보여 주는 순간, 티마에 새겨진 성모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범하고 살아 있는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성모 성화 속 성모 마리아의 눈에는 그 당시 사건의 주인공들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을 통해 뜻밖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성당이 발원 장소에 세워졌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곳으로 순례를 갈 수 있습니다.

후안 디에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남은 삶을 테페약 산 정상에 세워진 성당에 바칩니다. 그는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의 종착역이자 복음 선포의 자리인 성모

성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순례객들은 성모성지를 - 엄마의 집, 어머니의 집이기 때문에 - 자기 집처럼 느끼고, 천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를테면 하느님의 어머니가 계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모성지에서 신앙은 단순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진실한 방식, 대중적인 방식으로 신앙이 받아들여집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후안 디에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십니다(같은 책, 32쪽 참조). 우리는 이를 배워야 합니다. 곧,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께 가서 어려움을 나눠야 하고, 삶이 행복할 때에도 성모님께 가서 행복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모성적 언어, 모국어로 신앙이 표현되는 위로와 자비의 오아시스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삶의 수고를 성모님의 품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아마도 어린아이의 평화와 같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김호열 신부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3-08/papa-francesco-catechesi-udienza-generale-guadalupe-annuncio.html>
교황님 소식은 바티칸뉴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m Sung Ins.
삼성 종합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오바마 케어 상담 및 가입
대표: 심위성 (704) 537-3722
4801 E. Independence Blvd Suite 615 Charlotte, NC 28212

Dragon Champion 태권도
13024 Eastfield Rd. #A-400 Huntersville, NC 28078
704-992-1955
Han's US 태권도
6225 Blakeney Park Dr. #100 A Charlotte NC 28227
704-752-9400

홍콩 베이커리
HONG KONG BAKERY
스페셜 케익 주문 한국스타일 빵
생크림 케익
(980) 321-7283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Super G-Mart)

Charlotte Medical Center Family Medicine
샬롯 메디칼 센터(가정의학과)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치료, 감작성질환, 소화기질환, 알러지, 호흡기질환, 예방접종, 종합검진, 혈액검사, 각종 신체검사
(980) 228-9217 한국어 상담 및 예약
10340 Park Rd. Suite A Charlotte, NC 28210

Green Olive Realty
황정선 올리비아
공인중개사 / REALTOR®
(704) 557-6942
GreenOliveRealty@gmail.com

KEITH CLINIC
ESTRAMONTE CHIROPRACTIC
Dr. Choi (최대호 요셉)
근골격 질환, 관절 및 근육교정, 부상후 휴유증: 한국어, 영어 상담가능
5344 Central Ave. Charlotte, NC 28212 (704) 502-9997

데이빗리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사업체 매매, 투자용
이근모 베네딕토 (704) 408-9947
Email: dlee4989@gmail.com

G.F.J
refrigerator, Electrical, Heating/AC
일반 A/C & Heater, Hot Water Tank 설치 및 수리
최우식 (704) 771-8507 최베로니카 (704) 771-0785

LEPAGE | JOHNSON GROUP, LLC BROKERED BY EXP
박나연 올리비아
공인중개사/REALTOR®
부동산에 관한 어떤문의도 편하게 전화 주세요.
Eunice Park • 704-999-5448
eunice.lepagejohnson@gmail.com

Largest selection of Fine International Food • www.supergmart.com
신선한 야채, 과일, 생선, 육류, 다양한 인터네셔널 식품
super G mart
Charlotte Pineville
(980) 321-4048 (980) 999-6487
7323 E. Independence Blvd. Charlotte, NC 28227
10500 Centrum Parkway. Pineville, NC 28134

엄선된 최상의 식재료로 승부수를 던진다.
신선함을 지키기 위한 고집!
SOMI (소미) SUSHI
(980) 245-7024 www.somisushi.com
3104 Weddington Rd #100, Matthews, NC 28105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Exclusive Agent
박종호 /Chip Park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체 보험
Cell:(704)737-7203 Office:(704)849-7295
Email: chonghopark@allstate.com
10550 Independence Pointe Pkwy. Suite 201 Matthews, NC 28105